

히 나타내도록 한다.

(五) 氣象 및 石質調査

一九六一年 五月二十四日 文化財保存委員會 第一分科委員會와의 合同會議을 열고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一) 第一次 補修工事設計書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 廢棄하고 새로 設計하기로 한다.

1, 前室을 덮는 設計가 없다.

2, 동에 直接 荷重을 加하면서 二重동을 架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러한 施工은 石窟自體에 惡影響을 미칠것임으로 特殊施工이 必要하다.

3, 外部 排水溝와 內部릿트를 設置하여야 한다.

(二) 石窟庵으로 부터 佛國寺에 이르는 道路周邊을 古蹟 및 名勝指定 區域으로 擴張하고 環境을 整備한다.

(三) 附近의 賣店, 便所 등을 整備하고 必要에 따라 寺刹도 移築한다. 一九六一年 六月 七日 三次 會合을 갖고 다음과 같이 決議하였다.

(一) 設計의 範圍는 石窟庵 石窟工事 및 周圍環境整備까지 併合해서 全體的인 設計를 할것

(二) 設計는 金重業委員會에 委任하여 그 責任下에 處理토록 한다.

五, 프렌다리 이스博士來韓

UNESCO안에 있는 國際文化財保存研究所의 所長인 Dr. Harold Plenderleith가 石窟庵 補修의 技術的인 援助를 하고자 七月 十七日來 韓하여 二十一日에는 石窟庵으로 向發하여 目下 그곳에 滯留하면서 地 下水 處理問題를 檢討中에 있다.

六, 石窟庵補修工事의 着手

第一次 補修設計圖를 廢棄함에 따라 새로운 設計가 必要하게 되었으며 今年度 第一次 追更豫算으로 通過되어 이미 令達된 八千萬圓의 豫算으로

過去에 處理한 地下水의 排水裝置調査와 設計를 爲한 石窟盛土除去作業 이 지난 七月 三十一일부터 始作됨으로서 事實上 石窟庵補修工事는 着手된 것이다. 保存委員會에서는 이 設計書를 作成함에 있어서 技術的인

에서 金重業 考證의 면에서 黃壽永 두 委員을 監督官으로 選定하고 其他 專門的인 助言이 必要할 때에는 隨時로 委員이 現地에 出張하기로 決定하였다.

### 石窟庵 文獻目錄

鄭 明 鎬

三國遺事

佛國寺事蹟

佛國寺古今歷代記

山中日記(丁時翰)

文教部·國寶圖錄 第三輯(佛像篇)

外務部·KOREAN ART Vol 1. Painting and Sculptur

朝鮮總督府·朝鮮古蹟圖譜(第五冊 및 解說)

· 佛國寺と石窟庵(解說 및 圖版)

高裕燮·新羅의 美術

朝鮮古蹟에 빛나는 美術

金大成

《朝鮮美術文化史論叢》所收 一九五〇年

閔泳珪·佛國寺와 石窟庵 「유네스코韓國總覽」所收

崔淳雨·統一新羅의 美術(京畿道誌)下卷「美術史」所收

石窟庵의 美(世界) 一九六〇年 五月號

金元龍·韓國佛像의 樣式變遷 「思想界」 一九六一年 二·三月號

禹貞相·石窟庵의 思想的考察 (韓國思想講座三)高句麗文化社刊

濱田耕作·天平彫刻と新羅彫刻—其の代表として奈良三月堂と慶州石窟

庵—(日本美術)所收

● 奈良と慶州〈百齊觀音〉所收

木阪六村：慶州古蹟保存事業〈朝鮮に考栞して〉所收 一九二四年

慶州誌 一九二二年十月刊

諸鹿央雄：新羅寺蹟考 一九六一年十一月講演

高橋健自：新羅の古都慶州〈滿鮮考古行脚〉所收

石田茂作

大阪六村：「趣味の慶州」(一九三九年七月刊 慶州古蹟保存會刊)

「慶州の傳説」(一九二七年四月刊) (東京 蘆田畫店刊)

奥田悌：新羅舊都慶州誌

柳宗悦：石佛寺の彫刻に就いて〈朝鮮と藝術〉同氏進集第四卷所收

關野貞：「朝鮮美術史」〈朝鮮の建築と藝術〉所收論文

小野玄妙：吐含山の釋迦〈極東の三大藝術〉所收

中村亮平：石窟庵〈慶州の美術〉所收

渡邊彰：石窟庵境内の 古代石垣 및 古塔〈朝鮮〉Ⅱ一〇五

有賀衛門：慶州石窟庵〈中央美術〉一〇六

關野貞：石窟庵の彫刻〈美術新報〉一一一九

田中萬宗：石窟庵〈白日〉Ⅱ三一—一

● 子援の佛 石窟庵(朝鮮古蹟行脚)所收

東伏見那英：可無流知—佛國寺と石窟庵—〈寶雲〉十五册—十八册

寺田春一：慶州石窟庵の布置構造について〈圖畫と手工〉二〇—四

外山卯三郎：佛國寺石窟庵を觀る〈美之國〉一三一—二

田中重久：興福寺と慶州石窟庵の造像考古學雜誌〉三一—八

米田美代治：慶州石窟庵の造營計劃〈朝鮮上代建築の研究〉所收

水野精一：新羅の彫刻〈新版世界美術全集〉八卷

中村健太郎：佛國寺より石窟庵まで〈朝鮮佛敎〉一九

淺川伯敏：石窟庵の宿り〈慶北〉三年一號附錄

### 考古美術 一—

◎ 國寶 第三三二號 青陽 石造三尊佛立像

青陽郡 青陽面 邑内里에 있는 同 佛像是 國立博物館 林泉學藝官 監督下에 補修工事を 完了하였다.

◎ 國寶 第一八〇號 光州西五層石塔과 國寶 第一八一號 光州東五層石塔의 二基의 石塔은 지난 七月 二十日부터 解體修理에 着手하여 方今 工事が 進行中에 있다. 解體時에 立會하였던 同人 秦弘燮氏의 말에 依하면 西塔에서는 創建當時의 것으로 認定되는 舍利藏置가 第二層屋身에서 發見되었으며 東塔에서는 數年前 解體修理時 攪亂된 痕跡이 濃厚한채 塵土와 靑銅板이 第四層 屋身에서 發見되었다. 東塔舍利藏置는 方今 調査中이다.

◎ 多年間 調査를 거듭하던 石窟庵 補修工事は UNESCO에서 國際文化財 保存研究所所長인 Dr. Harold Plenderleith의 來韓을 契기로 地下水 處理狀況을 究明하고 完全한 設計를 爲하여 石窟表土를 除去함으로써 事實上 補修工事が 始作되었다. (詳細한 內容은 本文 「石窟庵의 保存經緯」參照)

◎ 國寶 第一號인 서울 南大門은 오랫동안 檢討를 加한 結果 補修工事の 切段階로서 서울시教育委員會 直營 아래 지난 七月 二十日부터 現狀實測에 着手하였다. 文化財保存委員會에서는 同實測의 重要性에 비추어 金重業 林泉兩氏를 監督官으로 選定하고 完璧을 期하고 있다.

◎ 지난 七月 二十九日에 開催된 文化財保存委員會에서는 다음 文化財의 補修工事を 承認하였다.

- 1、國寶第七五號 安東東部洞五層塔塔
- 2、同 第八〇號 浮石寺無量壽殿外四個建物
- 3、同 第三七八號 華嚴寺覺皇殿
- 4、同 第六三號 同 覺皇殿 앞 石燈
- 5、同 第二三七號 서울東廟
- 6、同 第二九七號 서울社稷壇正門
- 7、古蹟第一一七號 先蠶壇址